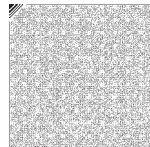


권중오 라파엘  
SBS 보도국 스포츠부장



## | 언제나 기쁘려면

고등학교 음악 시간 때였습니다. 소아마비로 다리를 저는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 가곡 ‘저 구름 흘러가는 곳’을 정말 환상적으로 불러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노래를 잘 하지 못하는 저는 마냥 부럽기만 했습니다. 노래 실력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신체장애를 갖고 있는데도 늘 환하게 웃는 그의 얼굴이었습니다. 친구의 모습에서 저는 미국의 팝스타 스티비 원더를 떠올립니다. 조산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서 산소 과다 공급으로 실명해 평생 시각장애자로 살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앞은 보이지 않지만 정확한 고음 구사와 동전을 떨어뜨리면 얼마짜리 동전인지 구분할 정도의 상상을 초월한 섬세한 청력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이것입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1테살 5,16-18)

저도 언제나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언제나 기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구절의 앞뒤를 바꾸면 해답을 찾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첫 단

계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자신을 낮추고 뒤돌아보는 성찰입니다. 인간은 성찰을 해야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해져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은 곧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해도 저는 기도를 가끔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기쁨을 항상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는 적다며 불만을 드러냈고 제게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망했습니다. 스티비 원더는 저와 반대였습니다. 가난, 흑인, 시각장애라는 삼중고를 겪었지만 그는 불평하는 대신에 주님이 선사한 비범한 발성 능력과 청력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더욱 갈고닦았습니다.

우리는 권력, 재산, 명예, 건강, 외모를 모두 갖춘 완벽한 인간이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부족한 부분을 갖기 마련입니다. 이걸 핑계로 중도에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불만을 나타내는 것은 영원한 패배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지만 결국 공평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 우리가 원하는 기쁨이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무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 사순 시기에도 부활은 계속된다고요?

주님 부활 대축일은 1년에 한 번이지만, 우리는 주님 부활 대축일 이외의 다른 주일을 작은 부활 축일로 지냅니다. “주일은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날의 기쁨을 연장하고, 반복, 재현하는 날입니다. 이처럼 주일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날이기에, 고행과 극기도 중지하고 성찬식을 거행하였다.” 이렇게 고행과 극기, 참회의 보속의 때로 여겨지는 사순 시기라 해도 그 기간에 있는 주일은 작은 부활 축일이라는 것입니다.

글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